

깊은 념려와 간곡한 부탁

—습근평 총서기의 회답편지, 민족지역 고품질 발전과 공동부유에 강대한 동력 주입



2023년 4월 22일, 경녕에서 개최된 2023 중국 서향(畝乡) ‘음력 3월 초삼일’ 민족문화전시공연 현장. / 신화넷

습근평 총서기는 최근 절강성 려수시 경녕쑤족(景宁畬族) 자치현의 여러 민족 간부와 군중들에게 회답편지를 보내 경녕현 창립 40주년에 열렬한 축하를 표시하고 경녕의 발전에 대해 간절한 희망을 제기했다.

깊은 념려와 간곡한 부탁이 담긴 습근평 총서기의 회답편지는 경녕의 여러 민족 간부와 군중 사이 그리고 민족지역에서 열렬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습근평 총서기는 절강에서 근무할 때 경녕을 기증사업력소로 삼았고 중앙에서 근무한 후 경녕 발전에 대해 여러 차례 중요한 지시 및 회시를 내렸다. “총서기의 이번 회답편지는 쑤족지역에 대한 진심 어린 걱정과 경녕 발전에 대한 일관된 깊은 중시와 기대를 담고 있어 우리 전 현의 여러 민족 간부와 군중들은 크게 고무되었다.” 경녕쑤족자치현당위 서기 웅지훙이 말했다.

현 건설 40년 이래 절강성 당위와 정부는 경녕 발전 가속화 지원정책을 내차례 내놓았으며 경녕의 간부와 군중들은 계속 분투해 쑤족지역의 특색, 산간지역의 특징, 후발주자의 특징에 립각해 생태적이고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을 개척

했다.

웅지훙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다음 단계에 경녕은 총서기가 제기한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요구에 비추어 계속 우수한 전통을 고양하고 민족단결을 증진하며 독특한 우세를 발휘해 민족지역의 고품질 발전과 공동부유의 모범으로 뉘 것이다.

경녕현 동룡촌에서 쑤족 귀향창업 청년 퇴정이 참여한 다방사업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곳에서는 쑤족 복장을 입어보고 쑤족의 대원자를 맞볼 수 있다.

“습근평 총서기의 회답편지는 귀향한 ‘농업 분야 창업혁신’(农创客) 군체의 자신감을 높여주었다.”

퇴정은 고향사람들과 함께 쑤족 풍토의 ‘농업과 관광의 융합’을 한층 더 추진해 더 많은 체험 항목을 추가하고 쇼트클립(短视频), 생방송 등 신기술을 더욱 잘 리용해 특색문화를 전파하고 특색농산물을 판매함으로써 마을 집체경제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고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데 힘을 보탬 것이라고 밝혔다.

절강성민족사무위원회 주임 포수영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습근평 총서기의 요구에 따라 새시대 ‘천만공장’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민족지역 농촌

의 ‘량산’(两山, 룝수청산이 곧 금산은산) 전환 통로를 넓히며 힘을 모아 일련의 ‘동심공부’(同心共富) 특색공정을 기획하여 민족지역 농촌의 집체와 농가의 소득 증대를 추진하고 민족지역 농촌의 룝색 발전을 진일보 추진함으로써 여러 민족이 함께 사회주의 현대화로 나아가도록 추진할 것이다.

민족단결은 여러 민족 인민의 생명선이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꿈을 실현하려면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민족단결진보사업을 기초사업으로 삼아 잘 추진해나가야 한다.

여름철 운남 립창에 가면 도처에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을 볼 수 있고 간부와 대중들이 아름다운 마을을 건설하는 생동한 정경을 볼 수 있다.

립창시당위 서기 두건훙은 “습근평 총서기의 회답편지는 우리 변강 소수 민족지역의 간부와 군중들이 아름다운 삶의 터전을 건설하고 민족단결을 수호하며 신성한 국토를 수호하는 신념과 결심을 더욱 확고히 다지도록 격려해주었다.”며 “당부와 책임을 명심하고 특색우세산업을 힘써 발전시키고 생태환경보호를 강화하며 민생복지를 지속적으로 증진하고 개방을 전

면적으로 확대하며 변강 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청해성 서녕시 성중구 전영가사회 구역에서는 여러 민족 군중들이 사회구역 “7.1”절 행사를 위해 춤과 노래를 연습하고 있었다.

전영가사회구역당위 서기 장약뢰는 “나는 습근평 총서기의 회답편지를 참답게 학습하면서 민족지역 군중들에 대한 총서기의 관심과 중시를 절실히 느꼈다. 우리 전영가사회구역은 여러 민족이 모여사는 사회구역이므로 반드시 군중봉사사업을 더 세심하게 잘 해야 한다.”며 “사회구역은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여 민족단결진보의 꽃이 여러 민족 주민들의 마음속 깊이 만개하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발전은 민족지역의 각종 문제를 해결해주는 열쇠이다. 중화민족은 하나의 대가정이며 가족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려야 한다.

녕하화족자치구 동심현당위 통일전선부 부부장 마혜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동심현은 습근평 총서기 회답편지 정신을 참답게 학습하여 특색농업 등 전통우세산업을 잘 발전시키고 지역적 특색이 짙은 력사문화, 민족문화와 홍색문화를 심층적으로 발굴하며 문화관광산업을 강화하고 고품질 발전과 공동부유를 추진함으로써 념려를 ‘황하류역 생태보호와 고품질 발전의 선행구’로 건설할 데 관한 총서기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기여를 할 것이다.

중앙민족대학교 교수 양수애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곧 열릴 당 20기 3차 전원회의에서는 개혁을 더 전면적으로 심화하고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연구할 것이다. 민족지역은 발전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민족지역의 고품질 발전은 여러 민족의 공동부유와 관계되며 중국식 현대화 건설의 전반로정과 관계된다. 민족대학교의 교원으로서 나는 〈중화민족공동체개론〉을 충분히 활용하여 민족단결진보사업을 위해 교수준의 전문인재를 양성하고 인재 보장 면에서 민족지역의 고품질 발전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인민넷 - 조문판

중국 대표 :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유엔 주재 중국 부대표 경상은 6월 28일 조선 핵문제 관련 안보리 공개회의에서 조선반도문제는 수십년간 남아있는 령정의 잔재로 미국과 조선의 상호 신뢰 및 평화체제 부재가 근본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반드시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중국은 수년 동안 이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 신화넷

왕의, 한국 전 국무총리 이해찬 회견



왕의가 6월 29일 북경에서 이해찬과 회견하고 있다. / 신화넷

중공중앙 정치국 위원이며 외교부장인 왕의는 6월 29일 북경에서 ‘평화공존 5항 원칙 발표 70주년 기념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 한국 전 국무총리 이해찬과 회견했다.

왕의는 다음과 같이 표했다. 귀하는 한국의 원로 정치인으로 다년간 중·한 우호를 발전시켜왔는데 중국은 이를 높이 평가한다. 아시아에서 시작된 평화공존 5항 원칙은 아시아가 국제관계를 위해 제공한 중요한 귀중한 공헌이다. 평화공존 5항 원칙에서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번 대회의 주제이다. 참석자들은 이에 대해 중요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북경선언〉을 발표함으로써 국제관계사에 또 하나의 중요한 장을 열었다.

왕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국은 중국의 가까운 이웃이며 량측은 자연스러운 파트너이다. 중국은 중·한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과 함께 노력할 용의가 있다. 한국 각계각층 인사들이 한국사회에서 올바른 대 중국 인식이 확립되고 중·한 국민간의 소통과 우의가 강

화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계속 하길 바란다.

왕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최근 경기도 화성시리티움전기제조 공장 화재로 많은 중국인들이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중국측은 이에 큰 중시를 돌리고 있다.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있는 대처와 함께 이러한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

이해찬은 다음과 같이 표했다. 중국측이 이번 기념대회에 초청해줘 감사하다. 어제 습근평 중국 국가주석의 중요한 연설을 경청하고 감동과 공감을 받았다. 중국은 시종일관 평화공존 5항 원칙을 준수해 각종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했으며 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이끌어왔다. 중국의 포용적이고 보혜(보편적 혜택)적인 태도는 오늘날 세계에 매우 중요하다. 한국 각계각층은 한·중 관계를 중시하며 중국 각계각층과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량국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키고저 한다.

량측은 반도 정세 등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 신화넷

[국제시평]

‘력사적 해답’에서 ‘시대적 해답’에 이르기까지의 중국의 책임

70년전, 아시아와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는 민족독립해방운동이 고조되었으며 신생국가들은 국가주권을 수호하고 민족경제를 발전시키기를 갈망하였다. 중국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평화공존 5항 원칙을 완정하게 제기하며 국가 대 국가 관계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력사적 해답’을 제시했다.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오늘날, 세계는 세기적 대변혁에 직면해있다. ‘어떤 세계를 건설하고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하는 중대한 문제에 직면한 중국은 인류운명공동체를 건설하는 ‘시대적 해답’을 내놓았다.

‘력사적 해답’에서 ‘시대적 해답’에 이르기까지 바뀐 것은 국제정세와 국제구도이지만 변하지 않은 것은 국가 대 국가 관계에 대한 중국의 혁신적인 탐구와 세계 평화와 발전에 대한 헌신, 정의롭고 합리적인 국제질서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이다.

습근평 중국 국가주석은 6월 28일 평화공존 5항 원칙 발표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평화공존 5항 원칙의 정신적 의미와 가치를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중요한 연설을 발표하고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의 리념이아말로 새로운 정세에서 평화공존 5항 원칙의 가장 좋은 전승과 고양, 승화라고 지적

하면서 ‘세계 남방’이 세계 각국 인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할 데 관한 강력한 시대적 메시지를 전했다.

지난 70년 동안 평화공존 5항 원칙은 국제관계와 국제법을 지배하는 기본 규범으로서 일련의 중요한 국제문서와 중국과 거의 100 개국이 작성한 외교성명에 기록되었다.

습근평은 연설에서 이 원칙의 ‘4대 력사적 공헌’을 종합적으로 요약하면서 이 원칙이 국제관계와 국제법치주의의 력사적 기준을 설정하고 서로 다른 사회제도를 가진 국가들이 관계를 수립하고 발전시키는 데 올바른 지침을 제공했으며 발전도상국들이 단결하고 협력하고 자강하도록 강력한 합력(合力)을 모으고 국제질서의 개혁과 개선에 력사적 지혜를 기여했다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중국파트너 관계연구소의 국제관계 연구프로그램 책임자는 평화공존 5항 원칙은 전승되어야 할 매우 귀중한 유산이라고 평가했다.

력사의 수레바퀴는 현재로 왔고 국제정세는 극적으로 변했다. 한편으로는 세계 다극화와 경제 세계화가 심층적으로 발전하고 ‘세계 남방’이 전반적으로 부상했으며 세계구도와 국제질서가 가속화되고 있는 반면 세계경제 회복은 더디고 우크라



2014년 6월 11일,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레빈들이 평화공존 5항 원칙 발표 60주년 기념 사진전을 관람하고 있다. / 신화넷

이나 위기와 팔레스티나—이스라엘 분쟁이 이어지면서 일부 대국은 령전적 사고 방식으로 되돌아가고 무역마찰을 유발하며 패권과 횡포를 일삼아 글로벌 관리체제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있다.

중국은 력사의 전환점에서 세계 각국 인민의 공통적이고 근본적인 리익을 중시하고 평화공존 5항 원칙을 고안하고 발전시키는 기초 위에서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이라는 중대한 리념을 제시하고 ‘어떤 세계를 건설하고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새로운 답을 제시했다.

그렇다면 새로운 정세하에서 어떻게 평화공존 5항 원칙을 추진하여 손잡고 인류운명공동체를 건설할 것인가? 습근평은 주권 평등의 원칙을 수호하고 상호 존중의 기초를 공고히 하며 평화와 안보의 비전을 실현하고 함께 번영을 건설하기 위한 추진력을 모으고 공정과 정의의 리념을 견지하고 개방과 포용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6대 주장’은 평화공존 5항 원칙의 본질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승화도 담고 있다. 레를 들어 문명 발전의 관점에서 개방성과 포용성을 강조하였으며 “상이한 문명은 서로를 동등하게 대우하고 서로 배우고 거울로 삼아 받아들이면서 호혜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 파키스탄 상원 국방위원회 위원장 겸 파키스탄—중국학회 회장 무사히드 후세인은 “인류운명공동체 건설 리념은 인류가 운명을 함께한다는 현실에서 비롯되었고 국제사회의 공통된 기대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중국의 대국적인 책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외교학원 교수 리해둥은 중앙방송총국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평화공존 5항 원칙은 인류와 국가 발전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라며 “인류운명공동체 건설 리념을 전승하고 추진하는 것은 혼란스러운 현 세계에 더 강력한 안정성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세계 남방’이 최전선에 나서야 한다. 70년전,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주권적 독립을 쟁취했지만 여전히 가난하고 락후하고 침체되어있다. 오늘날 세계에

서 ‘세계 남방’은 경제력과 글로벌 관리 측면에서 력량이 더욱 강해지고 더욱 자발적이고 주동적으로 국제사무에 참여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남방’의 자연적인 성원으로서 이번에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협력에 관한 ‘세계 남방’ 협력 창의를 제출했고 ‘세계 남방’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8가지 조치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인제양성, 청년교류, 경제발전, 자유무역, 농업협력, 디지털 경제, 룝색생태 등 분야가 망라된다. 이는 ‘세계 남방’의 발전과 부흥을 추동하려는 중국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 주었으며 남남협력을 강화하고 남북 협력을 촉진하며 인류의 진보를 추동하는 데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었다.

현재 중국은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모든 국가가 중국과 함께 공동 발전을 이룩하는 것을 환영한다. 습근평은 “평화나 전쟁이나, 번영이나 쇠퇴나, 통합이나 대결이나의 력사적 선택에 직면한 지금, 평화공존 5항 원칙의 정신적 의미를 전승하고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이라는 숭고한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국제방송